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3호 [루게 제24901호] 주제 104 (2015)년 5월 3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서 국가우주개발국장 유철우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시였다.

최첨단과학기술의 정수를 이루는 우주과학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명당자리에 위치도 잡아주시였으며 설계로부터 건설력량편성,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결사판철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임으로써 방대한 건설공사를 8개월동안에 끝내는 자랑스런 위훈을 창조하시였다.

연건축면적이 1만 3,770여㎡이고 기본건물과 측정소들, 보조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성과적으로 계속 쉼없이 쏘아올릴수 있는 든든한 도약대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형식이 새롭고 특색있는 멋쟁이건축물이 일떠섰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정밀 잘 지었다고 하시면서 우주정복의 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건축물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우주강국건설을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의 자욱자욱을 뜨겁게 돌이켜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주개발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이 땅에서 인공지구위성이 날아오르는 5천년 민족사의 특대사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하시면서 백옥같은 총정과 승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최첨단설비들을 더 보강해주고 우주와 똑같은 환경속에서 위성시험을 할수 있는 우주환경시험기지를 건설해주며 위성관제시설이라는것이 직관적으로 알릴수 있게 상징물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일떠선 곳의 해발고는 비록 높지 않지만 이곳은 우리 민족의 존엄이 응축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하시면서 선군조선의 종합적국력과 과학기술발전을 보여주는 척도답게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훌륭히 건설한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혁명한 평도밑에 지난날 총대가 없어 망국노의 운명을 겪어야 했던 우리

우리 조국을 우주강국으로 더욱 빛내임으로써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모든 건축물들과 요소요소를 실용성, 편리성, 미학성이 철저히 보장되게 최상의 질적수준

에서 건설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대형영상표시장치를 통하여 위성발사 전 과정을 실시간 보여주는 주현시실, 위성을 관제하는 보조현시 및 조종실은 물론 광학관측실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부합되면서도 웅장화려하게 건설했다고, 관람실도 참관자들이 위성발사를 관람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시공했다고 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충분한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줄수 있도록

전라도서실과 휴게실, 회의실, 사무실, 식사실, 침실도 잘 꾸렸다고 말씀하시였다.

기본건물과 보조건물을 외양으로 연결한것을 비롯하여 독립적인 건축물들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서로 조화되게 설계와 시공을 잘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실용위성제작과 발사, 관제를 원만히 하자면 모든 시설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과학화, 현대화하는것과 함께 우주개발자

리 나라가 오늘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위성을 만들고 쏘아올리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하시면서 평화적인 우주개발은 우리 당과 인민이 선택한 길, 선군조선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적대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중대사인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조선의 위성은 앞으로 당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련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올것이라고 힘차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우주개발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조국, 인민의 기대를 항상 명심하고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 새로운 전황을 가져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시하시였다.

국가우주개발국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은덕을 한시도 잊지 않고 새롭게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판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불타는 애국심과 창조적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나라의 평화적우주리용기술을 보다 높은 단계에 끌어올릴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수립화는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산림경영전략을 요구한다

지난 기간 산림부구전투에서 혁신해 온 연탄군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하였습니다.》를 격정속에 받아안고 그 과업판첩에 펼쳐나신 연탄군사람들의 정신력과 실천력은 남다르다. 몇해만에 산림복구전투를 끝낼 높은 목표에 온 군이 총동원되어 성과를 거두고있는것은 지난 기간 당의 산림조성정책관철에서 창조한 좋은 경험이 있기때문이다.

새로 찾아낸 나무모예비 200여만그루

산림복구전투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산림조성정책의 요구대로 나무모생산을 최대한 늘리고 확보해 달라는것이. 전시에 탄약이 제때에 보장되어야 전투에서 승리할수 있듯이 산림복구전투 역시 나무모생산을 따라야할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대 군일군들의 경험에 의존한다.

8년전 불철나무심기를 끝낸 후 군일군들은 산림조성정책을 놓고 고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한해에 생산되는 나무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건에서 벌거벗은 산들을 20여년세월이 흘러도 복구할수 없었던것이다. 수림화목표를 실현하자면 두해후부터는 매해 500만그루이상의 나무모를 생산보장해야 하였고나 조건은 양분수 부족했다. 모재양분과 밭기구의 양분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생산능력을 높인다 해도 나무모가 어마어마히 모자랐던것이다. 더구나 심은 후의 사물들까지 고려하면 200여만그루의 나무모가 더 요구되였다.

사실 8년전까지만도 군에는 70%이상의 산들이 벌거숭이가 되여있었다. 하지만 당정책을 민중에게 사상적으로 접수한 군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난관을 박차고 나무모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으며 심기와 보호관리사업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였다. 결과 많은 면적의 깎나무림과 잣나무림, 세일소나무림, 왕참나무림, 기름참나무림, 참나무림, 수유나무림, 단나무림 등을 조성하여 수립화실현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 비결은 군일군들이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산림경영전략을 세우고 왕궁하게 실천하여 돌파구를 열어나간데 있다.

당정책을위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성과의 의미를 먼저 본 다음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림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였다. 군적으로 한사람이 나무 100그루이상을 심는다고 볼 때 산림부담 양묘장만으로는 그 량을 보장할수 없다. 해결책은 나무모발을 20여정보다 늘이는 동시에 그 판리를 중중적으로 하는데 있다. 이미 여러 키우기의 산리용반들에서 자체로 나무모를 키우는 경험에 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실현 못할 일도 아니다. 더우기 제순으로 키운 나무모를 자기가 쉽게 하여야 사물들을 높일수 있는 조건에서 이 사업은 보다 절실하다. 중요하게는 그 과정이 모든 사람들의 애국성을 키워주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며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

결국 책임일군들은 산림조성사업을 전군전민으로 벌리는것을 수립화실현의 중요한 전략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군의 산림을 살리자면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자 무조건 해내자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제도 얼마든지 풀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으로 모든 일이 저절로 잘되어나간것은 아니었다. 성과의 열쇠는 군중을 출제 조직동원하는 방법론에 있었다.

군책임일군들부터 자기 집 터밭에서 나무모를 키우기 시작하였다. 누구보다 바쁜 그들이 산림부담 일군들과 기술자들을 찾아가 배우면서 나무모를 키우고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든 단위 일군들이 그 뒤를 따라나섰다.

이런 이신작적은 백마디의 말보다 더 위력하였다. 나무모를 제순으로 키워 심고 가꾸는 사람이 우리 땅이 바라는 참된 애국자라는것을 깨달은 대중이 너도나도 펼쳐나섰다. 한편 군안의 선전선동력량이 총동원되어 산림조성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과 함께 중중적인 소행을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같은 면적에 기름참나무, 단나무, 수유나무, 사과나무 등을 심었을 때의 수익성을 산에 일군 부대밭에서의 강행이 수확량과 대비적으로 알려주었고 집주변 산기슭에 조성한 단나무림의 덕을 보고있는 주민들을 강사로 출현시켜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결과 누구나 산림조성은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 조국의 만대대계를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며 나무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 자격조차 없다는 판첩을 가지고 분발하였다. 온 군에 총동원 한사람당 5명씩 차례지게 하는 원칙에서 단나무림 나무모발 만들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일어났다. 군군이 발달되지 않던 나무모발도 더 생겨났고 가정에선 생산한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실러나가 땅을 갈았다.

여기서 일군들이 놓치지 않은 요점이 있다. 나무모발관리능력들이 증가채취로부터 땅다루기, 지역농기, 석피우기, 종자심기, 가꾸기 등에 대한 과학기술을 알고 총동원들의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배워주고 총화평사업도 계획적으로 하여 그들의 승복성을 높여주었다.

올은 전략과 방법론을 가지고 전개한 사업은 성공하는 법이다. 사람들의 각오가 사롭고 경쟁열의가 높아진것만큼 나무모생산은 군중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진하였다. 결과 한해에 200여만그루의 나무모가 더 생산되고 사물들도 높아져 온 산림조성면적은 1,000정보이상 뛰어올랐다.

통일적이고 정연한 조직지휘체계

각오와 새로워져야 가능성은 얼마든지 찾아낼수 있었다. 우선 기능공문제는 매 단위에서 분별미있고 책임있는 총동원들을 선발하여 기술을 배워주어 풀기로 하였다. 지난 수십년동안 군산림부담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과 능력을 가진 기술자, 기능공들이 그들의 선생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무모발문제는 담당령에 살수이나 나무모발 만드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체실정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였다.

책임일군들이 제기한 문제를 놓고 군안의 모든 단위 일군들은 큰 가책을 받았다. 지극처럼 나무모를 제습으로 해결하지 않거나 어떤 계기에 나무 몇그루를 심으면서 산림조성에 떨쳐나서자고 말만 해서 는 언제 가도 벌거숭이산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것이였다. 한편 산림조성사업을 자기 단위, 자기 집 일처럼 여기고 군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한다면 나무모도

종합분석하여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다.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라는것은 우리당의 일반한 요구이다. 따라서 군대 모든 부분, 모든 단위의 나무심기와 가꾸기정형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 체계를 세우고 잘 운영하여야 한다.

올은 판단이었다. 아무리 나무모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산림조성실적으로 이어진다고는 볼수 없다. 또한 산림부담의 역량만으로는 심은 나무관리와 산물,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수 없었다. 더우기 경제림조성사업은 한두해동안에 끝낼수 있는 일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보며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이처럼 장기적이고 어려운 경제림조성사업을 잘하자면 지휘관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해가는 인민군대의 정연한 조직지휘체계를 받아야 하였다.

이 사업에서 책임일군들은 지휘부를 능력있는 일군들로 꾸리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우선 지휘부의 책임자, 부책임자가 군의 책임일군들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참모장의 역할을 수행할 일군선발법을 심중히 대하였다. 이것은 책임자, 부책임자가 이 조직의 구체적인 산림실태와 기술도 잘 모르게때문이었다.

책임일군들은 참모장으로는 당정책과 산림과학기술, 군의 산림조성력사에도 밝고 책임성이 높으면서도 진취성이 있는 인재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실무강습을 공평으로 진행하여 기술수준을 높여주었고 총화평사업에 의의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해나갈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모든 단위에서 나무심기와 관리가 군중적인 사업으로,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되는 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개척해가는 지름길

과과학기술이라는 기관자를 앞세워야 산림복구전투승리가 담보된다. 생명체를 다루는 나무심기와 보호관리사업은 힘과 육망만으로는 성과를 바라볼수 없다. 한그루의 나무라도 그것이 땅에 든드리 뿌리를 내리고 자랄수 있는 과학기술적조건을 정확히 보장해줄 때 그 단위의 산림조성사업이 당정책요구에 맞게 진행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군일군들의 경험은 시사적이었다.

몇해전 4월 중순 어느날 여러 지기로 나가 한탄대에 심은 잣나무들의 사물들을 보게 되었다. 군일군들은 한가지 사실이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읍지부보다 창래리의 신동지구에서 심은 잣나무의 사물들이 더 높았다는것이다. 알아본데 의하면 해비침들과 공정법적사항에서 다른 차이가 있었다. 다른것이 있다면 신동지구에서는 해동무렵에, 읍지에서에서는 땅이 충분히 녹은 다음에 심었다는것뿐이었다. 그 차이는 10일정도였다.

그날 일군들은 상반되는 두 결과를 놓고 산림조성에서의 적지적수, 적지적수원칙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았다. 결과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에 붙여 지은 나무모들이 모두 잘 자라 내 조국의 모든 산을 하루빨리 푸른 숲이 우거진 보물산, 황금산으로 만들려는 당의 높은 뜻이 담겨져 있었다.

서 선발된 사람들로 지휘부를 꾸리었다.

책임일군들이 중시한것은 이뿐이 아니라, 지휘부의 직능을 바로세우고 모든 사업에 인민군대와 같이 정규화, 규범화해나가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였으며 팔경과 나서서 그 대책을 세워주었다. 즉 군중적인 경제림조성전망목표와 년차별계획을 세운 후 모든 단위들에 총동원수령을 따져가면서 심고 보호관리해야 할 수종과 면적을 정해주었으며 매일 그 수행정형을 장악하여 한주에 한번씩 모든 일군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총화평기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휘부생원들에게 전일위에 담당단위를 맡겨주어 그들이 나무심기와 관리정형을 수시로 료해하고 부족점을 바로잡아주게 하였다. 또한 산림조성과 관리정형을 전문검열하는 생원들을 두고 제기된 자료에 기초하여 총화평사업에 엄격하게 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휘부생원들의 사무실과 컴퓨터, 통신수단 등 사업조건을 보장해주었다.

다담당일군들은 해결한 경우를 높고보자. 처음 모든 단위마다 담당령을 정해주었으나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의 성과는 하나같이 없었다. 원인은 이 사업을 소망대적으로 공평히 한데 있었다. 이것을 포함한 책임일군들은 매 단위에는 부책임자를 담당책임자로, 매 작업반에는 책임성이 높은 총동원들을 담당책임자로 두도록 하였다. 또한 실무강습을 공평으로 진행하여 기술수준을 높여주었고 총화평사업에 의의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해나갈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모든 단위에서 나무심기와 관리가 군중적인 사업으로,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되는 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었다.

군일군들은 나무모생산자들이 수립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도 경쟁적으로 창안도입하도록 하였다. 결과 아까지어나, 잣나무종자처리방법들이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완성되어 쓰러뜨리는물을 훨씬 높여주었다. 또한 단나무가지뿔을 우로 향하게 보관하고 흐르는 물에 담그었다가 땅에 꽂아심어 나무모생산을 증진보다 4배이상으로 올릴수 있었다.

이런것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산림부담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갖춰림조성사업도 일관성있게 밀고나갔다. 당과 국기앞에 전적으로 책임있는 림장에서 산림조성의 전 과정이 과학기술적으로 안받침되도록 작전하고 전개해나간 일군들의 진취적인 일관성과 사업기풍은 웅장한 결실을 안아왔다.

현실에 맞는 산림경영전략 즉 군중적인 나무모생산방법도입, 인민군대와 같은 조직지휘체계화, 과학기술의 힘으로 수립화실현의 지름길을 개척하여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연탄군의 산림복구전투는 우리 일군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있다.

혁명의 지휘생원들이 일군들이 수련관찰전, 당정책위원회의 기술, 전위투사가 되어 자기 시, 군의 실정에 맞는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산림경영전략을 세워 완장하게 실천해나갈 때 온 나라의 수림화, 림림화, 파수회화는 앞당겨 실현될수 있다.

본사기자 대명 호
본사기자 김성 일

탄전이 자랑하는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

석탄공업부문의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이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 탄전을 들끓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함이다.》

화력발전소들에 필요한 석탄을 원만히 생산보장할데 대한 당의 의도가 높고 대중의 정진력을 발동하기 위한 선동활동을 화전식으로 벌려 석탄생산들을 높이는대 크게 기여한 우리의 미더운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의 투쟁기풍을 아래에 전한다.

제남탄광 5갱 채탄 1중대 1소대 채탄공 강명호동무

제남탄광 5갱 채탄 1중대 1소대 채탄공 강명호동무는 당에 대한 충실성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대로의 기수가 되어 높은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고있는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이다. 그는 지난 12년간 선동원으로 활동하면서 백두선철제사원들의 위대한공적을 비롯한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소대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역세게 키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흑령탄광 로직갱 고속도 굴진소대 굴진공 김춘석동무

흑령탄광 로직갱 고속도굴진소대 굴진공 김춘석동무는 높은 실력을 지닌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이다. 그는 지난 14년동안 선동원으로 활동하면서 백두선철제사원들의 위대성자료를 각종 자료 수백권을 카드화하여는 가지고다니면서 여러가지 경험과 조언에 맞게 선동활동을 참신하게 벌림으로써 소대원들이 굴진계획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선동의 실패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그는 선동사업에 앞서 위대한 수행님들의 교의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습을 진지하게 하고 선동활동을 벌려온 한다.

을 특색있게 개시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당중앙사위원회, 당중앙위원회에서 열린 소대원들의 양양열의를 더욱 높여주기 위한 선동활동도 실속있게 벌리었다.

이에 고무된 소대원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마침내 1.4분기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명호동무는 뜨거운 인정을 지닌 현실의 인간이다. 탄광생활에 안착한 자지 못하고 말발에 오르면 고대의 한 란부를 위해 진심을 바쳐가며 꾸준히 교양하고 이끌어주어 로력혁신자, 고급기능공으로 키운것을 비롯하여 그가 친혈육의 정을 기울여 소대원들의 사물과 생활을 도와준 이가없지는 아무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러나 왜 소대원들이 그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지 않을수 있었는가.

흑령탄광 로직갱 고속도굴진소대 굴진공 김춘석동무는 당정책을위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성과의 의미를 먼저 본 다음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림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였다. 군적으로 한사람이 나무 100그루이상을 심는다고 볼 때 산림부담 양묘장만으로는 그 량을 보장할수 없다. 해결책은 나무모발을 20여정보다 늘이는 동시에 그 판리를 중중적으로 하는데 있다. 이미 여러 키우기의 산리용반들에서 자체로 나무모를 키우는 경험에 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실현 못할 일도 아니다. 더우기 제순으로 키운 나무모를 자기가 쉽게 하여야 사물들을 높일수 있는 조건에서 이 사업은 보다 절실하다. 중요하게는 그 과정이 모든 사람들의 애국성을 키워주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며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

신을 높이 발휘하며 년간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칙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사위원회 회공포장이 넘쳐나신 소대원들의 양양열의를 더욱 높여주기 위한 선동활동도 실속있게 벌리었다.

이에 고무된 소대원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마침내 1.4분기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명호동무는 뜨거운 인정을 지닌 현실의 인간이다. 탄광생활에 안착한 자지 못하고 말발에 오르면 고대의 한 란부를 위해 진심을 바쳐가며 꾸준히 교양하고 이끌어주어 로력혁신자, 고급기능공으로 키운것을 비롯하여 그가 친혈육의 정을 기울여 소대원들의 사물과 생활을 도와준 이가없지는 아무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러나 왜 소대원들이 그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지 않을수 있었는가.

흑령탄광 로직갱 고속도굴진소대 굴진공 김춘석동무는 당정책을위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성과의 의미를 먼저 본 다음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림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였다. 군적으로 한사람이 나무 100그루이상을 심는다고 볼 때 산림부담 양묘장만으로는 그 량을 보장할수 없다. 해결책은 나무모발을 20여정보다 늘이는 동시에 그 판리를 중중적으로 하는데 있다. 이미 여러 키우기의 산리용반들에서 자체로 나무모를 키우는 경험에 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실현 못할 일도 아니다. 더우기 제순으로 키운 나무모를 자기가 쉽게 하여야 사물들을 높일수 있는 조건에서 이 사업은 보다 절실하다. 중요하게는 그 과정이 모든 사람들의 애국성을 키워주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며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

능수이기도 하다. 그는 한교대당 두 발파를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안을 생산에 받아들여 굴진속도를 높일수 있게 하였다.

그는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뒤떨어진 탄부들을 맡아 꾸준히 교양하고 이끌어주어 로력혁신자로 되게 하였다. 김춘석동무의 성실한 노력에 의하여 소대의 전투력은 강화되었으며 집단적 단합된 힘으로 맡겨진 굴진계획을 훌륭히 수행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흑령탄광에 이곳 탄부들이 자랑하는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이다. 그는 지난 13년동안 선동투사로 활동하면서 백두선철제사원들의 위대한공적을 비롯한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소대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역세게 키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흑령탄광 로직갱 고속도굴진소대 굴진공 김춘석동무는 높은 실력을 지닌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이다. 그는 지난 14년동안 선동원으로 활동하면서 백두선철제사원들의 위대성자료를 각종 자료 수백권을 카드화하여는 가지고다니면서 여러가지 경험과 조언에 맞게 선동활동을 참신하게 벌림으로써 소대원들이 굴진계획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선동의 실패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그는 선동사업에 앞서 위대한 수행님들의 교의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습을 진지하게 하고 선동활동을 벌려온 한다.



왜 두벌농사면적을 1.5배로 늘였는가

영주군 내중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과학기술성공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주군 내중협동농장에서 두벌농사면적을 1.5배로 늘이였다. 그 과학적담보가 있다.

농장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전국농업부문 선동위원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자자구 새겨가서 과정에 두벌농사면적을 늘이는데 압록강의 중요한 방도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관리위원장 백연동무가 지난해 감자 대 논벼두벌농사에 성공한 일부 참가자들의 경험을 분석한 자료가 일군들에게 심을 주었다.

지난해 레닌에 없는 왕가들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두벌농사방법을 받아들인 작업반들의 정보담감자는 20t, 논벼는 7t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비결은 이 두벌농사방법이 곧물적합성있는것이였기때문이었다. 뒤그루는 큰모를 키우네므로 많은 물을 절약할수 있어 가물피해를 극복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앞그루를 심으면 뒤그루벼모는 6월 중순경에 하기때문에 5월 한달만 안을 물에 대지 않고도 많은 물을 절약할수 있었다. 또한 모내기일을 끝낸 얼마후에 장마가 시작되므로 물을 적게 쓰면서 농사를 지을수 있었다.

또한 좋은 점은 유기질비료원천이 제한되어있는 농장의 실정에서 지역을 늘일수 있는 농사방법이었던것이다. 감자일출기를 물에 준 포전의 일묵소출을 질비료만 준 포전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그것은 바로 감자일출기의 투비효과였다.

질소와 카리화합이 거름이나 일반비료작물보다 높은 감자일출기는 투비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농장의 경우 감자소출을 하고나면 정보담 20~30t의 질좋은 거름과 흙비료로 5t을 포전마다 충분히 넣으면 감자에 논벼가 비하게 자랄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도록 한것이다.

다음으로 농장원들의 기술수준과 책임감을 높여주는 사업이 있었다. 일군들은 벼모판세부리와 앞그루감자심기가 농작물에게 건강을 주는 조건에서 감자일출기를 정보담 10t정도 넣은 논벼 정보담 소출을 늘이지 않은 논벼에 비하여 수백kg정도 더 높았다.

또한 감과 병해충의 기본발생시기가 지난해 6월 중순에 감자를 수확한 다음에 큰모를 키우네므로 많은 물을 절약할수 있어 가물피해를 극복할수 있는 좋은

본사기자 장철 범
본사기자 김성 일

